

송영의 <一切面會를 拒絶하라>

박영장*

송영의 희곡 <一切面會를 拒絶하라>(전1막)는 그 내용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송영의 희곡을 다루거나 1930년대의 풍자극을 다룬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 작품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왔음은 물론이다.¹⁾ 이미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만큼 이 작품의 특성이나 희곡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굳이 이 작품을 다시 소개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 작품이 최초 지상 발표된 것은 1930년 1월 1일자로 발행된 『朝鮮講壇』(1930년 1월호)를 통해서이다. 그 후 이 작품은 1932년 集團社에서 朝鮮푸로레타리아藝術同盟文學部 編으로 간행된 『갑프作家七人集』에 재수록되었고, 다시 1955년 북한에서 간행된 송영희곡선집 『일체면회를 거절하라』(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 재수록된 바 있다. 즉 이 작품의 판본은 ①조선강단

* 건국대 강사

1) 그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재석, 「송영의 희곡세계와 그 변모과정」 『울산어문논집』 제6집, 1990.

김재석,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와 1930년대 풍자극」, 『한국극예술연구』 제5집, 1993.

박영정, 「한국 근대 희극의 사적 연구」, 건국대 대학원, 1991.

박희정, 「송영 희곡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91.

이승희, 「송영과 채만식의 풍자희곡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92.

전소연, 「송영 희곡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91.

본(1930년), ②카프작가칠인집본(1932년), ③북한본(1955년)의 세 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창작 당시의 판본이라 할 수 있는 ①, ②보다는 ③이 더 많이 알려져 온 것이 그간의 실정이다. 이에 최초 발표본이라 할 수 있는 ‘조선강단본’을 소개함으로써 이 방면 연구자들의 편의를 돕고자하는 의도에서 영인본의 형태로 다시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세 판본 사이의 차이점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에서는 ①의 오자·탈자를 바로잡는 데서 생긴 차이가 나타날 뿐이고, ③에서는 ①, ②와 표기법이 달라진 데서 오는 차이가 보일 뿐이다. 등장인물의 대사 하나 하나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일 텍스트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다만 ②의 끝에 ①에 없는 “밖계서는 노동자의 찌드는 소리가 난다”(185면)는 지문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과 ③에서 극중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잡지 이름이 ①, ②의 ‘백두산’에서 ‘한라산’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은 작가의 의도적인 수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세 판본 사이의 차이가 극히 미미함에도 ①의 조선강단본을 다시 소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 있을 뿐 아니라 창작시기에도 매우 근접한 ‘원본’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의가 적지 않을 줄로 안다.

『朝鮮講壇』은 1929년 9월 10일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제3호까지는 제호를 ‘朝鮮講壇’으로 발행하다가 1930년 4월호부터 ‘大衆公論’으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제호에서 알 수 있듯이 순문학지가 아닌 종합시사교양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발행인이 申琳으로 되어 있고, 朝鮮講壇社의 주소가 ‘京城府 堅志洞 80番地’(당시 카프 사무실)로 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카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발행된 잡지이다. <一切面會를 拒絕하라>의 머리에 실린 삽화의 왼쪽 하단에 당시 카프 미술부에서 활동하던 姜湖의 ‘H.Kang’라는 싸인이 있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③의 북한본에서는 이 작품의 구체적 창작 시기를 ‘1929년 가을’로

밝혀놓았는데, 『朝鮮講壇』 제3호의 발행일자가 1930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사실로 보아 틀림없을 것 같다.

끝으로 이 '조선강단본'에는 오자와 탈자, 불필요한 첨자 등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 이는 당시의 낙후한 인쇄사정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 두드러진 예로 작품의 서두에 '一九二八'에서 '二'가 탈락되어 '一九八'되어 있다든지, 말미에 '一幕'이 '二幕'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는 것들을 들 수 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p>支配人 알니 주지 못할 것은 것이 무섭니까? 설명을 한번 만 번 하 여도 줄머 죽겠다 고 들야 많이 맘이 따 社 長 어! 그래도 나가서 잘 말해... 우리 회사도 돈을 남기고 그 때는 것도 아니고...</p>	<p>支配人 글세. 팔는지요. (회중 지못나산다)</p>	<p>女 給 「다른 방도 드려오면」 공장 때 표라고 그 때 면서 수 社 長 심명이 나 한 외 번에 와서 면회물 청합니다</p>	<p>女 給 뭐! 뒷기실허. 지금 支配人 영감도 나갔서 社 長 그 때 두요</p>	<p>社 長 뒷기실허. 면회는 거절이다 「電話 소리가 생김」 「女 給은 나산다」</p>	<p>社 長 (電話를 찾는다) 네... 내가 사장요. 네... 그러 심니까? 자기가 신문사에요. 네... 뭐요. 망 년회 준비로 돈이 있서야 해요... 얼마나요... 네오 심리예요... 지금이 더러오실리예요... 여 보세요 (착수통을 받는다) 별서 쓴첫네</p>	<p>支配人 (다들 잘 들었어오면) 큰일났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업습니다. 영감께서 보시고 말씀은 하시든지 하십시오</p>
<p>社 長 여보게. 나는 오늘 面會 할 수 없네...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난다)</p>	<p>女 給 (어디로 청한다) 에구. 영감여부요. 괴생이 그저 한애가 왔습니다... 社 長 뭐야 (어리둥절한다)</p>	<p>社 長 뭐야. 괴생이라고 女 給 그러고요. 괴생 말고 또 만허요... 社 長 아! 다! 뒷기실허</p>	<p>支配人 그리고요. 영감 社 長 (그 첫 초회하을 손다) 물론이다. 지금부터는 일제 면회물 거절해라 (電話가 온다)</p>	<p>女 給 (바다를 고서) 영감. 면회요 社 長 물론이다. 면회도 면회물 거절한다 「女 給 支配人, 눈이 붉고 대드다」</p>	<p>— 二幕 —</p>	

<p>社 長</p> <p>글세 영감이 큰회사의장이라고 별로 허욕트조아가될지도 알고 점 어되와서하 로 四十전과피비틀린다고 역시프로백타 리아트니 뛰니할제어되잇셔요</p> <p>글세말요 참뚫든중해한말요 아년제아니 라그대서 선생을참오시편것요 이번대대 유모로 장려운동을일이키겠는데 선생갓 트신어른이점 힘을써주셔야될줄밧삼고요</p> <p>원 천만세요 저갓문사맘이 무슨힘이잇 겠습니가만은……그러나 힘자라는데외지 는힘을써보겠습니다</p> <p>(차윤가지고풀어오편서우소리크키) 차 가져옵너 다 (외음키에다노비) 이뵈게 갓다눔니다 (글베로부친다)</p>	<p>女 給</p> <p>(차윤가지고풀어오편서우소리크키) 차 가져옵너 다 (외음키에다노비) 이뵈게 갓다눔니다 (글베로부친다)</p>	<p>社 長</p> <p>(우수말을하디다가차와만보고 참으편서詩人을보코) 자! 차나잡수사슈</p> <p>(二人차윤의는다 女給한척으로가서엇다)</p> <p>(차윤의키고우서) 사실저회잡지 (백두산)도 온백두산아래회사는무리들은 승업한백두 산을올아러보고살나는뜻에서 나왔습니다</p>	<p>詩 人</p> <p>(차윤의키고우서) 사실저회잡지 (백두산)도 온백두산아래회사는무리들은 승업한백두 산을올아러보고살나는뜻에서 나왔습니다</p>
<p>社 長</p> <p>사실이지 백두산은 옛브러지글까지한만 코는물만혼산임니다 애친자라가 세자를 잡아잡고 동등거리니목소와갓치 압록강 은천너든것도보고 열파나울엇겠스며 한 판혼남의장군외 (白頭山下機刀薙) 이란비 장한노래소리물얼마나뜻있게들엇겠습니가 머군다나 싯연건큰최영이가 젊은물결에 웃속서서 바루스면 눈물실은거차지나가 고 모루스면 한숨실혼집배가져나가는지 금은구경가면서 몇천년전세 류화로화의 뜻갓은색시의 구름갓론머리에쓰치엿든풀 비너가이물우해여내려 오든것을생각하면 오죽이나잡구지회가나겠습니가 (우물윤치며) 아! 참 선생은시인이시다</p>	<p>社 長</p> <p>(우물윤치며) 아! 참 선생은시인이시다</p>	<p>詩 人</p> <p>조금이나 뛰하게아시지마슈 내귀잡지사 에 몇분보태되리겠스니 아모조록 오래동 한말습요자구편에선생</p>	<p>詩 人</p> <p>조금이나 뛰하게아시지마슈 내귀잡지사 에 몇분보태되리겠스니 아모조록 오래동 한말습요자구편에선생</p>

詩人

우부진해서요:
되나만그런것아니올시다만은 경제제논머
한잡이업지안요

社長

그래그것은 비록 여러가지 원인이원인
이되어있다그하지만그중에도 모든사람들
의사상문제가 제일큰술입니다...: 뭇보다
모 우터들은 (가슴울치며) 『우터들』이라는
정신이업지안소

詩人

(다소공복이되며) 그뻬습니다 지금 일부조
계급주의자들은 철업시 외국말잡지뻬술
에만취하야가지고 뻬니뻬니하고썩들지만
실상생각하면 우터들이라것은 우터들이
라고하는뻬술이갓흔한유치가아님니까

社長

참 을흔말슴이지요 사실나도 주소로생
각한는것은 이생각뻬게업소 나갓치 돈
뿐이나 잇는사람이 니뻬치절알음해서이
터케회사니뻬니하고 애통쓰갓소 다! 사
업이니가그뻬치 실상 회사외의이익이뻬갓
이뻬돈도뻬되지만 그거나마 (뻬) 女給이차뻬
+갓다가 (뻬) 부워의다뻬는다 社長은우아우우이뻬의

詩人

서 수권적용에 상여금이니 쯤 그뻬고
우터들에뻬뻬뻬뻬오는것은 여러저거에거
부들하고나면 나에게는 한뻬도채뻬가아
니온다오 (우분웃의 女給을보며) 아니여름에
어뻬다) 아이쁘지 (女給을보며) 아니여름에
가저온다는조리도업시가저와서 응...: 뻬
그모양아이어서다시가저와 (女給나잔다) 이것
또 실패했소

아이 천만에요 영감에말슴이 지당함니
다 더욱히 제가 영감에말슴과아름니
진것이차잔이 넘어진것을보고는진것임니
다

붙쇼 분화구에서 쏘다저흔는것은무엇이
원인임가 께이주먹에마저서 넘어진외딤
입니다 이갓치 세상터치라는것은 서로
부닥치면뻬뻬뻬는오는것이업슴니다
더욱히 한군데서 뻬뻬뻬뻬가치살어온한
되가진뻬뻬뻬뻬뻬하면 결국엔 원
뻬뻬이 전체가 양양한태뻬양뻬속애장사
지내는신세가되지도

<p>社 長</p> <p>응: 그것 직금까지의 생각은가지고 있스 니. 그것 사회의 모두가 겹스하게 자 라나고 있는 것만 보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p>	<p>妓 生</p> <p>그렇지만 아모리 국산장며니 뭐니 해 서 저희들의 생활보다도 무의무런 수 목은 출해있으면 엇더케 괴생노릇을 할 수 가 있사야지요. 그것치 안어요... 입성이 날개 라고요.</p>	<p>社 長</p> <p>하:는 것보다 진실한 남편과 단란한 살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원이에요. 그것치 만 ... 어 되사 회라는 것이 그 때요... 정말이지 저희 이 번등 불빛해서 거울을 되려다 보 고 분숨질을 하는 것은 손님에게 어엽부게 보히려는 것보다 엇더하는 남모르게 오트 는 눈물 자국을 감추려는 것이 어만 않나 다 암. 그것치 참을 혼말이다. 그 계무슨 처담 인 줄 아느냐. 그것 사회가 가난한 처담이 며 사회가 왜 가난하냐 하면 안에 있는 돈을 밖으로 내보내서 남의 물건은 사느라 탐이 란다.</p>
----------------------------------------------------------------------------------------------------	--------------------------------------------------------------------------------------------------------------------------------------	-------------------------------------------------------------------------------------------------------------------------------------------------------------------------------------------------------------------------------------------------------------------------------------------------------------------------------------------------

<p>社 長</p> <p>하: 그것치 아니요. 저 직업이 너 가</p>	<p>妓 生</p> <p>과서 이익이 불해보란 말야 그런 저희들도 괴생을 면 할 수가 있나요</p>	<p>社 長</p> <p>하: 그런 소리가 탈아 자격이야. 별수가 있나. 자- 그럼 애 재일로 내일 할부러 시 작을 해라. 내일이 큰 망연회가 열니는 때 적어도 너희들에 三四十名은 불닐러이니 내가 웃감감으로 돈 재원을 줄터이니. 조선 비단으로만 보답하면 드려입고 와서 괴회 과서 이익이 불해보란 말야</p>	<p>妓 生</p> <p>그렇지 아니요. 저 직업이 너 가</p>
---------------------------------------------	-----------------------------------------------------------------	---------------------------------------------------------------------------------------------------------------------------------------------------------------------------------------------------------	------------------------------------------

야지 뭐냐... 하면 말이 다 대개 너희들에
 게 좀 너서 밥을 냈을삼아 가면서 도라단기
 는 너석들이란 것들은 저운 돈뿐이나 있
 다는 집자제들이만랴... 그중에 도플전업누부
 망자녀석들도 있고 또 교제하는라고 점
 잔케노는 왜도 잇겠지만... 험... 그러니와 생
 각해와라... 다른나라 청년들은 돈하루업시
 도 상공업에 힘쓸싸서 나중 큰성공을하
 지만 조선의 잇는 음의 자식들이 하는 건 그저
 부모의 도장이나 위조해가지고 주색에빠
 지는 것으로만 승사들삼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그러니와 그런것은 부모의 위엄
 이나 법률의 엄혹한 것보다 아도 몇케해도
 나가온 입분기집애들이 권하면 후마음
 을 돌릴는지도 물을일이 아니냐?
 그래서 니들볼는 것이야 내가 인식은 볼는
 다만은 옛날의 벽성성이란 괴생은 비파
 술을 쓴어서 어둔일금의 마암도 밝히놋스니
 너희들은 당수한목소리로 현대청년의압
 권을 바로 잡아 줄수도 잇는게 아니냐

<p>妓 生</p>	<p>社 長</p>	<p>妓 生</p>
<p>그때 네 말이올라 대개 석을로치면 행 당사리하는 집게집매가 괴생이 판히된것도 의집이라야갈너도 버선짝한아업는 행랑 계집애라고 피려갈사담도압고하니 애라 고생하고 몸망하진맛창가지다든 그래서그 런게지 허수스스그래도 너는한권번의 형 수괴생이라 말하는게달는구나 그런데 말씀은세요 저희들도 사실날 마다 밤마다 일끝음은은남자에게 씹싸</p>	<p>에요 조화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원학 집안에 서 간구하게지냈기에문에 그런것이만말습 상하면 그계집애가류탕하고 음란한것은 조화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원학 집안에 노릇을조화하는것도잇겠지만 그것도 실 건사실이됩니다 후잔엇던괴생들은 괴생 어가머릿가따 맘에업는노릇을하지요 그 백이면백이 누가 괴생노릇이하기가조화 서하는사람이 어되잇겠지요 다! 먹고살 (지력은나를유히잇다간) 글세요 그거야 퍼! 조혼말씀에요 실사이지 저희들괴생들도</p>	<p>에요 조화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원학 집안에 서 간구하게지냈기에문에 그런것이만말습 상하면 그계집애가류탕하고 음란한것은 조화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원학 집안에 노릇을조화하는것도잇겠지만 그것도 실 건사실이됩니다 후잔엇던괴생들은 괴생 어가머릿가따 맘에업는노릇을하지요 그 백이면백이 누가 괴생노릇이하기가조화 서하는사람이 어되잇겠지요 다! 먹고살 (지력은나를유히잇다간) 글세요 그거야 퍼! 조혼말씀에요 실사이지 저희들괴생들도</p>

<p>妓 生 답이나 해..... 호수 웃어죽겠네...엇엇든지 하시라는대로 하거나 하지요 애련(일부러가쁜척) 저는도 선귀생입니다 용수한대동강수가 청류벽을 휘감아들이가고 단아한옥단대가 운초에 넘치듯 은련하게 일금수강산인 평양의귀생에요</p>	<p>社 長 얘기 수도도하다...그러면 퍼니時間이모자란다...자 인제는간단히대답올해!그런데 너 지금입은웃은 어느나라웃잡인가글세요 일본인요 청국인요...불탄단이라너가몰는지요</p>	<p>社 長 엇엇든지 도선웃잡은아니지..... 그렇지요...(웃엇이생각나다가) 울치알았습니다 국산장려물하시는 연설을하시려는시초입니다그럭...호수..... 그때야...영감회사외물건이만히말널에너차요</p>	<p>社 長 (필적취면) 뭐야.....요민암쯤스럽게아니너회화눈에 내가 그럭저럭 턱목에만눈이뒤집힌줄아느냐...나는적어도 너회를갖든</p>
<p>妓 生 불상한사뎐을 위해서 이따위것을 하는 것이야.....만일우티곳에 이같은회사라도 판아 료업스면 세계의수치가아니냐 (극제트범츠하면) 호수...왜 역정이나겠서요 그럼잘못했습니다 다!영감에게 응석으로그렸지요 (아강후천단)</p>	<p>社 長 (동치면) 아니 너를잘못했다고 그러는건아니다만.....너...무슨말이든 그럭저럭 막해서안된다 웃음의말에송사간다는말이있지안호냐...그러면대 말들어라...내가너를괴색이라고업순역역서 하는말은아니지만...너회것흔것들도 그저 옛날괴생모양으로 유무분면으로 화류탕아와역결너지내기만할것은아니다</p>	<p>社 長 (다소크세이달나지면) 그렸습지요 머욕히 지금에 우리들형편은 빈부귀천과남녀로유물물론하고 다갖치 마암을합해일할일이아니냐...그러니너 너회것흔괴생들도 술잔을잡고목소리물판고 눈웃음음치고하는사하라도.....너회들의할일...해</p>	<p>社 長 (다소크세이달나지면) 그렸습지요 머욕히 지금에 우리들형편은 빈부귀천과남녀로유물물론하고 다갖치 마암을합해일할일이아니냐...그러니너 너회것흔괴생들도 술잔을잡고목소리물판고 눈웃음음치고하는사하라도.....너회들의할일...해</p>

<p>社長</p>	<p>妓生</p>	<p>社長</p>	<p>女給</p>	<p>社長</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社長</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라 응... 잘 잊었네... 자 어서 이따로 와서 안저</p>	<p>에구 그동안 안녕하셧서요</p>	<p>응 어서들어오라고해봐</p>	<p>女給나가드니妓生과차치들어온다</p>	<p>귀생애요</p>	<p>응 누구드냐</p>	<p>(들어오며) 손님오셧습니다</p>	<p>사취(웃으며) 그뻘치만 관계잇슬나고</p>	<p>영히: 고개다들었스니 잊혀하니... 사취</p>	<p>네: 그림: 잘못알았습니마그며 (나간다)</p>	<p>고손짓만하시교요</p>	<p>(물나누쳐올하며) 네 선제요 저리가섯스라</p>	<p>고손짓만하시교요</p>	<p>스라니까 거기잇서</p>	<p>다가 너굴을보교드려서) 아니: 왜 나가가잇</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다: 안녕히계서요 (편히물다하고나서 초차조화하</p>
<p>社長</p>	<p>妓生</p>	<p>社長</p>	<p>女給</p>	<p>社長</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女給</p>
<p>라</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p>나</p>

사 무는 라고 기 명. 관. 관 리

<p>女 社 女 長 給 그럼 나오거든 내게 다 때라 네에.....(사회) : 내.....비연삼니가..... : 하수 수수저는 만종이가 아냐요 저 방직회사인 메요.....잠잠만게서요 (환문) (환문) (웃으면서) 어.....너 비연이냐 나는 나.....허수 : 몰느겠니.....나 몰몰나.....허수 수아문한거인 제안단말야.....그런데.....애 못잡오니라.....五 分前에 화야한다 그래야 겨우 이약이는 三十分 동안밖에 못한다.....저어! 三十分 뒤에 는 또 맛달나가잇스니가.....웅.....그때.....액 기.....고것.....버릇잡게.....해해해.....그럼 못 오너라.....그때.....오.....(웃는다) 헛 : 삼분결.....애.....나는 나가서.....아니.....선 문자로 접어와라 여.....(환문) (환문) 三五〇番 신문사의 요 사장실로 데려와라 여보세요 신문사예요 사장실로 데주세요 네.....여보세요 사장선생님이십니까.....네</p>	<p>社 長 : 몰느겠니.....나 몰몰나.....허수 수아문한거인 제안단말야.....그런데.....애 못잡오니라.....五 分前에 화야한다 그래야 겨우 이약이는 三十分 동안밖에 못한다.....저어! 三十分 뒤에 는 또 맛달나가잇스니가.....웅.....그때.....액 기.....고것.....버릇잡게.....해해해.....그럼 못 오너라.....그때.....오.....(웃는다) 헛 : 삼분결.....애.....나는 나가서.....아니.....선 문자로 접어와라 여.....(환문) (환문) 三五〇番 신문사의 요 사장실로 데려와라 여보세요 신문사예요 사장실로 데주세요 네.....여보세요 사장선생님이십니까.....네</p>	<p>女 社 女 長 給 그럼 나오거든 내게 다 때라 네에.....(사회) : 내.....비연삼니가..... : 하수 수수저는 만종이가 아냐요 저 방직회사인 메요.....잠잠만게서요 (환문) (환문) (웃으면서) 어.....너 비연이냐 나는 나.....허수 : 몰느겠니.....나 몰몰나.....허수 수아문한거인 제안단말야.....그런데.....애 못잡오니라.....五 分前에 화야한다 그래야 겨우 이약이는 三十分 동안밖에 못한다.....저어! 三十分 뒤에 는 또 맛달나가잇스니가.....웅.....그때.....액 기.....고것.....버릇잡게.....해해해.....그럼 못 오너라.....그때.....오.....(웃는다) 헛 : 삼분결.....애.....나는 나가서.....아니.....선 문자로 접어와라 여.....(환문) (환문) 三五〇番 신문사의 요 사장실로 데려와라 여보세요 신문사예요 사장실로 데주세요 네.....여보세요 사장선생님이십니까.....네</p>
<p>社 長 (환문) : 네 영감이십니까 말씀안녕하십 니가? 네.....천만에요 제가 어제는 남우 실례를했습시다 그런데 영감여보세요 (女給에게가 마는 수운판단) (女給나가느 취하고은 남자가있다) : 저! 영감의 수고물점필일이잇 습니다.....네.....고맙습시다 다른게 아니라요 내 일저녁은 장녀회주최로 유지신사방면 회를한번열어보십쇼에.....그런데요 비용은 내가다.....담당할것스니요.....영감께서는준 비를점해주세요.....원! 천만에.....다! 사회 를위하는조그만마술에 그러는것이조.....허 : 그런데요 장소는식도원으로드하고 비유 은 약 이천원가정예정하겟스니 그범위 안에서 큰비를하셔요 각신문사장부는클 문이지만요 작은행 화사라든지 목사로 장으로 잇덧든지 유지신사는모다청해주 세요.....그리고 신문에도접내세야합니다..... 네.....뭐요 제일흔을신문에내신다고요.....원</p>	<p>社 長 (환문) : 네 영감이십니까 말씀안녕하십 니가? 네.....천만에요 제가 어제는 남우 실례를했습시다 그런데 영감여보세요 (女給에게가 마는 수운판단) (女給나가느 취하고은 남자가있다) : 저! 영감의 수고물점필일이잇 습니다.....네.....고맙습시다 다른게 아니라요 내 일저녁은 장녀회주최로 유지신사방면 회를한번열어보십쇼에.....그런데요 비용은 내가다.....담당할것스니요.....영감께서는준 비를점해주세요.....원! 천만에.....다! 사회 를위하는조그만마술에 그러는것이조.....허 : 그런데요 장소는식도원으로드하고 비유 은 약 이천원가정예정하겟스니 그범위 안에서 큰비를하셔요 각신문사장부는클 문이지만요 작은행 화사라든지 목사로 장으로 잇덧든지 유지신사는모다청해주 세요.....그리고 신문에도접내세야합니다..... 네.....뭐요 제일흔을신문에내신다고요.....원</p>	<p>社 長 (환문) : 네 영감이십니까 말씀안녕하십 니가? 네.....천만에요 제가 어제는 남우 실례를했습시다 그런데 영감여보세요 (女給에게가 마는 수운판단) (女給나가느 취하고은 남자가있다) : 저! 영감의 수고물점필일이잇 습니다.....네.....고맙습시다 다른게 아니라요 내 일저녁은 장녀회주최로 유지신사방면 회를한번열어보십쇼에.....그런데요 비용은 내가다.....담당할것스니요.....영감께서는준 비를점해주세요.....원! 천만에.....다! 사회 를위하는조그만마술에 그러는것이조.....허 : 그런데요 장소는식도원으로드하고 비유 은 약 이천원가정예정하겟스니 그범위 안에서 큰비를하셔요 각신문사장부는클 문이지만요 작은행 화사라든지 목사로 장으로 잇덧든지 유지신사는모다청해주 세요.....그리고 신문에도접내세야합니다..... 네.....뭐요 제일흔을신문에내신다고요.....원</p>

社 長	말 관계업에 그때게 먼저 경찰서로던 화물거러뚝케그며	支 配 人	허그건 탄처한대요 (직속소리가돌하저며) 허 탄처나마나어서나 가서일이나 시작하게	支 配 人	(마자못해서) 배(나잔단) (招人 總 會 令 單 だ)	社 長	애.....어서 이터은... (조음오다가명출하고) 애 그때세요	社 長	응 너 오늘할일이만타...저 던화솜해라 (원화앞으로오면) 네 어되토요	女 給	저 거기가어되드라...응 백두산잡지사말 이야	女 給	네 알겠서요 저 문예오락잡지 만드느 데요	社 長	그때 그때서 그리걸어서 주필선생님이 나오시거든 점 못오시라고그래	女 給	네...:(원화음전다) 三九〇番...네...거기가 백두산잡지사십니까...네...여기는방직회사
社 長	입니다 그런데요 주필선생님께십니가네 ...선생님이에요 네...그래세요 여겨는방 직회사사장실입니다 점 밥부신데미안함 나.만은 사장영감께서...진급히 의문 한일이게시다고 못오시라고요...네...네... 그렸습니다...네...그럼잠간만겠요...:(사장음 보고) 이것보세요 저음 신년호해문에 띄 밥부시다고요 그럿치만 잠감은오시것는 데 약삼십분은걸너것다요	社 長	응 조라고그래라 여보세요 그라면은 三十分뒤에못오세요 네...그럼안녕이갑쇼...:(은카다)	女 給	애...선 관번에잡거러라 네...:(원화) 五六七〇番 네 거기가 동원반 이십니가...네...여겨는방직회삼니다 (社長음 보고) 누구들볼니요	社 長	응 비연이 다시) 여보세요 비연씨게서요 네 잠간 만청해주세요...:	女 給	(웃으며) 응있다니								

<p>支配人 왜-오늘이 년말상여금들을술날이아니에</p>	<p>社長 아니 또 무슨큰일이판말인가?</p>	<p>支配人 (나가되다가) 참 영감 정말큰일난일이잇슴 니다그터</p>	<p>社長 응...그럼어서나가보게</p>	<p>支配人 자-그럼-저드나가서 ㅁ 일을착수 하겠슴니다</p>	<p>社長 네...그럼 제가잘못했슴니다그터 (이어서 서야아니하나 그러니외말이지:</p>	<p>支配人 이약이를해보자는것이야...그러니까 紳화 도하고 손님접대도하고하려면 女給이잇</p>	<p>社長 음혼목사나한아블니서 돈문식이나 주고 수한것이아한아블니고 또 그중 紳용이</p>	<p>支配人 편으로는 科생이라고하는것은 사회각층 의사람파다석겨노니가 科생중의 그중특</p>	<p>社長 선서 제일가는 시인이아블니고 또 한 편으로는 科생이라고하는것은 사회각층</p>	<p>支配人 아니되니까사회각방면으로 연락을취해야 하거든: 그때서 제일 민중에게 선전이 잘되는것은 말의단문학이니까: 그래도조</p>
<p>支配人 그럼 큰야단이날걸요...</p>	<p>社長 대강 이런뜻으로써부치게 하기를바라노라</p>	<p>支配人 물취하는정신으로 일만 생활정도들진속</p>	<p>社長 근로하는 직공제군은 회사와 공동보조</p>	<p>支配人 주게되엇노라</p>	<p>社長 재에의하야 금년에한해서만 상여금은안</p>	<p>支配人 이변년말에는 상여금을 제때할</p>	<p>社長 판에다 광고들써부치게</p>	<p>支配人 그럼여보게 잇다가게시즘지내거든 회사</p>	<p>社長 그렇지만어디그때요</p>	<p>支配人 니 한야에五원씩만주어도 千명이면五千 원인데.....</p>

<p>支配人 社長</p> <p>그랬습쇼...그하면 잇덧게하시겟쇼 아니여보게 잇덧케라니 이것보게 자네 자네도직금브리라도 선전광고지나점백이 고 신문에도내일광고문도쫓이고그에게그 런데 죽산장려 작작자금이라는글자논아 조더큰글자로쓰게...그리고내용도말야 아</p>	<p>社長</p> <p>사조가 그진달판나서 상공이된는지몰으 겟습니다 필:되네 되네 그러고더욱히 거회가조 혼것이 내가 그장며회의 중앙간부거든 ...왜 자네도알지안나...저번동에 몇百圓 을거부물했드니 단동에 칙켜올너머그려 ...그사담들은 우라물티용하느고 그땀 겟지만 나도실상은 그회화약수를들하는게 영업에 리가종될뚱해서 그런게지 여보게:실상우머찌러니말이지 그까진물 산을장며하는게실상뜻가...잇덧케든지영업 이나잘되어서 백만장자나되면그만이지그 땀지안흔가? 그랬습쇼...그하면 잇덧게하시겟쇼 아니여보게 잇덧케라니 이것보게 자네 자네도직금브리라도 선전광고지나점백이 고 신문에도내일광고문도쫓이고그에게그 런데 죽산장려 작작자금이라는글자논아 조더큰글자로쓰게...그리고내용도말야 아</p>
<p>支配人 社長</p> <p>아니 다 그런데 뭐야오후... (正色) 옹히여보게 그런데야냐 내 약 이들겟듯게 이번에는 장며회만꺼도일이</p>	<p>支配人 社長</p> <p>조 우국지사의강개한말을써야하네:나는 이방에서할일잇게 그랬습쇼 그런데:이방에서무슨일을하신 단말습야요 女給기집애화 단들이만힐일 인데:몇시간안으로 자네보담은 더큰 일을씀여늦치 (인후손으로막으며웃으며)허수...:영감도 망년 이십...허수수수... 아니 자네밧쳤나...아니 왜이땀케웃어 허수수수 그럼...:좀처송말습입니다만은 아니 영감갓은신어른이:그 어리다어린 女給과 한방에서:허수수수 허수수수 그사람:옹히 사람도 꺾은실업 스기도하이:허수 참우서죽겟네:그에게 젊은사람들을할수업다는마이야썩한방에만 잇스면:허수 다!그런가</p>

<p>社 長 서그따위운동이. 소용아나왔습니까 참을존말알씨. 아드우려들은. 풍습이나상 업이라는데왔나...올씨. 바늘구냥하나도팔 는공장이업스니. 좀. 한삼노릇인가...그런 대도. 공부했다느같은. 녀석들을받았문화학 이나. 철학이나. 무슨물리학이나. 하고떠 드니. 그제다. 실상생각하면. 말쑥지방또 (웃으)네. 물리학이라요...네...무로테타리 아말입니까?</p>	<p>支配人 그야. 내가자세아나. 풀넷타인지면넛타인 지...허수손...그런데. 여보게. 저니. 이 약이가. 알데업시갓타. 그대...자...여보게 네...:</p>	<p>社 長 이번일때때때을있몇개생각올랐나...: 네. 대강은생각을하했습니다만은...: 응...그럼어서야약이올해보게...나도. 대강 은덕은마음이있네...: 이것물쇼. 제일먼저가. 유비화사에서.는판 로물담려야갓습니다...그대도. 그전에.는 물산장려하는바람에. 못담았나.듣것이.인</p>	<p>社 長 제.는. 점수인삼이강박하게되어서. 쪽의죽 품만사되리니. 그것을막아야합니다. 참. 그제거정이진거정이나. 그럼무슨수로 막나. 쓰다지는바닷물을.막는것이났지...: 그대도. 어되까지든.지해보기는해야요...: 사실. 우리회사의「압록강」표라든지「八掛 圖」표같은것은. 그까진. 인조전에다가델 것이못됩니다.</p>	<p>支配人 그렇지만. 인조전이싸니.외각정이지...어디 사는사람들야. 그땡게. 내가타물건은내 가써야갓다는그런사상들은. 가지고야잇나 그저덜허긱코. 싸면사지안나! 그러면. 우리회사것도감을내립니까. 잇섯 힘니까. 가入독하나. 저들도. 덕있어.만저 가못한데요.</p>	<p>社 長 그대게나.는. 선생같이한아잇네...아모렷케 해도. 이번. 년말을더용해配. 대선던...하 되...우려물단독으로하는게아나.라. 물산장 려회와약수를해가지고하고자든...: 그것도. 조키는합나.다만은. 지금에. 세상</p>	<p>支配人 그것도. 조키는합나.다만은. 지금에. 세상</p>
---------------------------------------------------------------------------------------------------------------------------------------------------------------------------------------------------------------------------------------------	------------------------------------------------------------------------------------------------------------	-------------------------------------------------------------------------------------------------------------------------------------------------------------------------------------------	----------------------------------------------------------------------------------------------------------------------------------------------------------------------------------------------------------------	-------------------------------------------------------------------------------------------------------------------------------------------------------------------------------	----------------------------------------------------------------------------------------------------------------------------------------------------	----------------------------------------

<p>社長 (신촌내인지요) 어—별서 한때나 되었네... 흠 (招人 徵 募 員 是 也)</p>	<p>女給 (左門=도쿠 드마 노미) ...네... 불느셨서요 社長 그래 어서 나가서 支配人 영감 점들어 오시 라고</p>	<p>女給 (나간다) 社長 (신촌을 다시 보며 獨自) 어—안만해도 큰 일 인 건... 支配人 (들어온다) 에 불느셨서요</p>	<p>社長 으! 어서 이리로나 와서 안기 나하게 支配人 (와서 右便橋 子 에 안는다) 社長 그런데... 아모리 생각 하여 드새 이 年 末 이 큰 나 네</p>	<p>支配人 글세울시다... 社長 (시골을 수역서) 이것덜 보게 저... 萬金銀行 이 또 망했네 그며... 저... 藤村 商店 하고 內 外貿易 이 망하는 중에... 支配人 (점리터다 보다) 어—그것 참... 전정 판 샀습니 다 다 그며... 그저 날마다 여겨져서 텅수 소리 만나니...</p>
<p>社長 이것 큰 일 닐네 다른 것 파달나서 우며 들실 업계 라는 것은 전 환 관계 가 있지 아나 한가... 대테이 게 무슨 원 인 인 술 물 으겠네... 글세 왜 大 戰 直 後 尙 未 大 正 情 况 은 한 번 다시 회복이 아니 되나?</p>	<p>支配人 글세요 잇머께 그런 원 인 이 야 알 수가 잇습 나가 후학 자 갖 돈 사 람 들 이 이 약 이 하는 것 들 으 면 자 번 수 의 가 막 다 탄 골 목 이 서 여 서 다시 말 하 오 면 머—발 던 뉘 여 유 가 업 서 서 그런 다 고 하 지 만 그 것 도 꼭 어 들 수 도 업 서 응 그 까 진 책 상 물 님 의 입 만 안 작 자 들 의 하 는 말 이 야 총 을 잡 을 수 가 잇 나 머 옥 그 연 석 들 은 인 심 을 소 만 하 게 멘 들 어 서 아 조 싼 세 상 을 멘 들 너 고 들 하 나 그 게 다 쓸 데 잇 는 조 민 가 더 옥 히 우 터 조 선 장 천 데 에 서 야... 그 령 습 요... 그 야 말 로 일 영 미 두 갖 돈 일 등 문 명 국 갖 치 상 공 업 의 발 달 이 쿠 도 로 되 여 서 실 로 로 동 자 의 수 호 도 만 코 하 면 그 들 의 생 활 의 안 정 은 도 모 하 기 위 한 다 든 지 하 는 운 등 이 잇 겠 지 만... 어 떠 공 업 먼 지 도 물 으 는 이 곳 에</p>	<p>社長</p>	<p>社長</p>	<p>支配人</p>

